

# 무화과 나무의 비유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24:32-35]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33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35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1.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과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말세의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교훈을 얻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비롯하여 말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여러 사람들의 찬송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자신이 자신의 제자중 한 사람과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배반과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왕으로서 당당히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의 장사판을 뒤엎고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실은 그 장사꾼들보다 그 뒤에서 이익을 착취하는 제사장들의 무리를 더 비판하셨으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혹독히 비판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던 날 오후에 성을 떠나시고 베다니로 나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가시던 길에 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잎사귀들은 있었는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는 곧 말라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19-20]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리니 20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 버리는가! 하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성질이 나빠서 공연히 이 죄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과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무화과 나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주님께서는 이 두 무화과 나무를 동일한 한 나무로 여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영원토록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고 저주하셔서 말라버렸던 이 무화과 나무가 2000년 후에 다시 살아서 "연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는" 때가 되면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일까요?

## 2. 이스라엘의 소생과 종말의 때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 나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상징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사사기 9:8-13, 호세아 9:10, 아모스 4:9]. 주님께서는 비유로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퇴락 상태를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로서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말세에 이 저주 받은 무화과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죽었던 무화과 나무의 소생과 유사한 다른 소생의 기적에 관해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른 뼈의 소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37:11-13]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12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13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일부 부흥 강사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인데, 사실은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무려 1900여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난 1948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유엔의 승인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무려 14차례에 걸친 주변 아랍 국가들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하고 나라의 힘이 급속도로 커가고 부강해지고 있는 사실은 바로 에스겔 33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죽었던 뼈들이 모여져서 주님께서 초 자연적으로 힘줄과 근육과 살들로 채우시어 다시 하나의 생명체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200여년전에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셔서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서 이제 연한 가지를 내고 이 가지들에서 잎사귀들이 자라나는 것과 동일하게, 주님의 자비로우신 역사가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종말의 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종말의 시기를 판단하려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지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사도들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영어로 "Watch and Pray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마26:41, 막 13:33, 막 14:38, 누 21:36, 엡 6:18]. 여기에서 'watch [그리스어 gregoreo]'의 의미는 '기대하는 가운데 경계함 [vigilance and expectancy]'을 의미합니다<sup>1</sup>. 즉,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위를 유심히 관찰함을 의미합니다. 단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함 [watching]의 능동적, 행위적 요건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번역이 되지 못합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유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고 주님께서 명하셨고 사도들이 권면하였음을 알고 이를 게을리 하면 아니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결실 시기는 주로 여름이 매우 무르익은 8월말에서 9월초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고 하신 뜻은 바로 이스라엘의 결실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천여년 동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회교도들에 의하여 가는데마다 많은 핍박과 억압, 그리고 민족 말살의 추악한 범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은 "마귀의 분비물로 가득하여 돼지처럼 그 더러움에 딩구는 민족"이라고 악평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회당과 학교와 집들을 불 지르고 기도책들을 파괴하며 이 독이 가득한 벌레들을 강제 노역소에 보내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20세기에 들어서 악마의 제자인 나찌 영도자 히틀러는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 무려 6백만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 노역에 보내어 독일의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희생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그렇게 죽은 것이나 다름 없었던 유대 민족이 마른 뼈가 소생한 것처럼, 죽은 무화과 나무가 소생한 것 처럼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여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오고 잎이 생겨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결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가지나 잎사귀를 바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이스라엘의 주이신 주님께서 잡수실

<sup>1</sup> James Strong, The New Strong's Expanded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2001, Thomas Nelson.

과일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웃 사랑의 열매, 그리고 경건의 열매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종교의 형태만 갖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었습니다.

지난 2천년 동안 대부분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주 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유대 민족은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 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경원시함과, 미움과, 천대, 그리고 민족 말살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아닐까요?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된지 얼마지 않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소위 Messianic Jews들이 비밀리에 모였는데 그 수가 2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집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의 수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의하면 결실의 계절,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늦 여름이 되면 많은 결실이 맺힐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중 메시아닉 주들의 수가 10만명을 초과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에 의하면 그 수가 144,000명이 될 것입니다 [계 7:1-8]. 이 133,000이라는 숫자는 특정 종파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 7장은 유대인 12부족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합계가 144,000명입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결실이 되기 전에 신약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초자연적인 이동, 즉 휴거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데전 4: 16-17]. 대언자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이레, 즉 큰 환란의 7년 후에 주님이 재림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 9:27, 계19:11-16]. 그렇다면 그 환란 기간 7년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평화 조약의 채택, 그리고 제3성전의 건축이 될 것입니다. 단 9:27절은 “언약의 확정”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7년의 한 중간, 즉 3년반 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이 희생물과 봉헌물을 바치려면 성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7년의 초기에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Temple Institute [성전 공사]”가 수년전 수립되어 제3성전의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의 말로는 제3성전의 신축은 1년이면 완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간에 평화 협상이 수립되어야 성전산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 협상은 아랍국들과 이스라엘에 모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치적 능력과 수완을 갖춘 사람만이 양측을 설득하여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탄야후 이스라엘 수상과 함께 소위 “세기의 평화안”을 발표하면서 이 안을 팔레스타인 측에서 받아들일 것을 촉구 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여타 아랍국들과 함께 이 평화안을 악한 제안으로 일축하고 이를 거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이 수립되려면 조금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지도자,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아랍 국가들을 설득하여 평화안을 받아 들이도록 함으로써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화평의 언약”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우리는 호주의 대규모 산림 화재, 그리고 주먹만한 우박의 피해, 그리고 나서 홍수 피해에 관해 뉴스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RS, MERS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신형 전염병의 확산으로 온 세계가 불안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북한 김정일은 여러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유도탄 발사 등을 시행하면서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심지어 미국을 위협하여 자기 정권의 보장과 협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고 지도층의 대거 탈북 사태로 북한 정권은 머지 않아 붕괴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2천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들로서, 우리는 이 징조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마지막 7년의 시작이 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 3. 종말을 사는 크리스찬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대언자들과 주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실화 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몇가지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5장의 첫 부분 [25:1-13절]에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지니고 신랑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과 말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 말고 주님의 빛을 밝히 비취야 하는데, 열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주님을 고대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지닌 교회도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행히 그들의 등에 기름이 있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 하여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식만 갖추고 말씀과 성령의 내재하심이 없는 껍대기 교인들, 그런 교인들로 가득찬 교회들을 가리키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둘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 [25:14-30],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이문을 남겨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라”는 칭찬과 더불어 천년 왕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를 땅에 묻어두고 주님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주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심각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산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셋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주님의 말씀 [25:31-46]인데, 이 심판은 천년 왕국 통치의 시작 초기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인데, 천년왕국의 이후에 이루어질 흰 보좌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는 주님 재림 시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소집되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심판 받을 것인데, 각자 인생 중에 주님과 그의 사역하는 종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의 역사를 방해하며, 그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종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병문안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칭찬과 더불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 받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심령과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말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하고, 주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종말의 징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미리 예언된 징후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신실한 종의 생활, 주어진 달란트를 현명히 활용하는 생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진리의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